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2월 22일(일) 제1521호



사진은 2024 성탄절 온라인 전시회 '온누리의 크리스마스'에 제출한 성도들의 작품.

온 누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12월 21~22일 '성탄주일예배', 22일까지 '성탄절 온라인 전시회'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블레싱', 25일 '성탄 감사 찬양 예배'

온 누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눈다. 온누리교회 성탄주일예배를 12월 21일(토)과 22일(일) 드린다. 모든 캠퍼스에서 온 성도가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22일(일) 차세대 예배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성탄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예배가이드가 포함된 갑티슈를 나눠준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는 성탄절 온라인 전시회 '온누리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한다. 12월 22일(일)까지 전시회에 소개할 성도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를 제작해서 인스타그램 해

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4)나 온누리교회 카카오톡 채팅방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IT지원실 사서함)이나 서빙고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설치된 빨간 우체통에 넣어도 된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소속 캠퍼스, 공동체,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성도들이 제출한 크리스마스 카드는 온누리교회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한다.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12월 25일(수)까지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1,300여 명이 지역 교회와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눈다. 화개제일교회, 해금강교회, 한숲농아인교회, 황산교회, 당포교회, 낭도규포교회, 하서제일교회 등 23개 지역 교회에서 이웃 초청잔치, 교회 꾸미기, 어린이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예배 등을 할 예정이다.

성탄절 당일(12월 25일)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성탄절 감사 찬양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양재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에 막 오른다. 다른 캠퍼스는 캠퍼스별 일정을 따른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KBS1 방영

12월 25일 오후 10시 50분

CGN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스페셜 마스터가 12월 25일(수) 오후 10시 50분 KBS1에서 방영된다. KBS1에서 방영하는 '바울로부터' 스페셜 마스터는 총 10부작이던 기존 다큐멘터리를 80분으로 밀도 있게 집약한 버전이다. 기존 '바울로부터'가 바울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갔다면, '바울로부터' 스페셜 버전은 바울이란 사람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 기존 10부작의 삽화를 실사화해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나온 복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알아보고, 선교 정체성이 점차 소원해지는 한국 교회에 다시금 영혼 구원의 소명을 일깨우고자 기획했다. 그리스도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에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준다.

CGN 전진국 대표는 "'바울로부터' 스페셜 마스터의 공중과 방영은 비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성탄절에 방송되는 '바울로부터'를 통해 바울이 만난 예수와 바울이 경험한 극적인 은혜가 곳곳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송구영신·신년·새벽기도회 일정

예배 이름	일 정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화)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서빙고, 양재 / 다른 캠퍼스는 개별 일정)
신년예배	1월 1일(수)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서빙고, 양재 / 다른 캠퍼스는 개별 일정)
오직예수 신년 새벽기도회	1월 6일(월)~11일(토) 오전 5시 30분(모든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3월 10일(월)~4월 18일(금) 오전 5시 30분(모든 캠퍼스 본당)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

12월 22일 평택온누리교회 2층 본당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를 12월 22일(일) 11시 25분 본당에서 드린다.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 담당)가 설교한다. 신동식 목사는 "평택온누리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사모하고,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평택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국내 여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을 섬김껏 섬기고, 젊은 부부와 차세대 양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12번째 캠퍼스 '제주온누리교회'

12월 18일 이취임예배 ... 노규석 목사 취임

온누리교회 12번째 캠퍼스 '제주온누리교회'가 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601에 있다.

제주온누리교회 캠퍼스 교회 전환 및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지난 12월 18일(수) 오후 7시 제주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김태완 목사가 이임하고, 노규석 목사가 취임했다. 이날 예배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이기원 목사(목회기획실장), 이인용 당회서

기 등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제주온누리교회 성도 등 185명(현장 115명, 온라인 7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태완 목사는 이임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또 다른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제주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인사했다.

노규석 목사는 취임사에서 "귀한 제주온누리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 리더십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면서 "

제주온누리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성령님게 날마다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온누리교회 전신은 온누리교회와 AMA(Acts29 Mission Alliance) 협약을 맺은 협력 교회 제주드림교회다.

제주드림교회는 지난 2013년 온누리교회와 Acts29 비전을 공유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로 설립됐다. 2019년에는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제주 Acts 29 훈련센터(IATC, Jeju Acts29 Training Center)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김태완 목사는 안산M센터를 담당한다(관련 기사 4면).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역사적 상황은 한결같이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해도 절망이 묻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측은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다윗 왕권이 완전히 몰락한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의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역사적 절망 상황에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1절에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다윗 왕조가 철저히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 목자에 불과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영웅 탄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새처럼 비천한 사람의 출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모습이 멸망당한 다윗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루터기 뿌리들은 땅속 깊이 박혀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직접 가지가 돋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비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머물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영,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와 영,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부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누구에게도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임하시는 것과 머문다는 것은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 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 주셨습니다.”(요 1:32-33).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기적을 일으키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그분을 믿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와 영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와 영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심령의 문제를 아셨고, 그에게 임하신 여호와와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와 영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략과 용기의 영입니다.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려면 모략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엄청난 공격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모략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능력으로 모략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 경외함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담대하게 행하시고, 그 결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지혜와 통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로부터 함께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영이 충만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통찰, 모략과 용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메시아의 모든 소명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정직, 신실함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 띠를 삼을 것이다”(3-5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젊은 부자 관원은 매우 경건해 보이고 합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돈의 우상에 사로잡힌 그 영혼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캐오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정죄 받고 뭍을 인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며 그를 친구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통치 원리는 공의와 정직, 신실함입니다. 6-8절을 보면 모든 적대 관계가 사라집니다. 어떠한 공포, 파괴, 공격이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신실함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뛰어넘어 이루어질 나라를 보

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1장 29-30절을 보면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양식은 풀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뜯고 약한 것을 잡아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함께 구속됨으로 인해서 타락 이전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도자나 시스템으로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9절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약속,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에서 난 싹, 나무에서 나오는 줄기,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됩니다. 모든 민족의 깃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뿔뿔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깃발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을 이끄는 자석 같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아픔, 고통과 눈물, 슬픔과 좌절을 완전히 씻고, 피조세계, 동물의 세계, 모든 세상까지 온전하게 구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민족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깃발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그분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언어(2)

완전한 언어로 회복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주장이 옳은가? 물론 아니다. ‘사람의 말’의 불완전성에 기초한 진리에 대한 이 극단적 회의주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다른 말로 원죄 이전의 아담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말’의 회복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령강림 사건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사건(행 2:4-11)이 일어났다. 이것은 바벨탑 이전으로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아담의 언어’, 즉 영성을 갖춘 완전한 언어로의 회복을 보여준다. 따라서 말의 불완전성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진리가 없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며, 나아가 저주받은 주장이다. ‘진리가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거짓말쟁이다’는 역설, 즉 내가 거짓말쟁이라면 내가 한 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역설과 같은 역설이다. 이처럼 ‘진리가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져 허우적대는 갇힌 자의 주장이다.

사실 중세 시대를 제외하고 고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은 진리의 자가당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소크라테스는 생각과 말을 일치시키는 방향으

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대화주의’가 그것인데, 대화상의 말(음성)은 생각 또는 이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서 그는 소피스트들을 진리를 거부한 ‘문자(글자)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문자는 생각에서부터 음성을 거쳐 나온, 그러니까 두 단계나 떨어진 말이며,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최초의 뜻과 다르게 소피스트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입장은 소크라테스와 동일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두 철학자 모두 대화에 사용된 말의 불완전성을 간과하고 있다.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보편 종교가 되었다. 우리는 중세 시대를 인류 역사의 암흑기라고 배웠는데 근대적 시각일 뿐이다. 물론 종교지도자와 권력의 부패가 있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신실한 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은 빈한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특히 진리의 문제에서 중세인들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으나,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최소한 자신의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있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가 있다. 이 우화는 중심이 부재할 때 부분적 정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반대로 각각의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중심이 있다면 이 부분적 정보들도 가치가 있고, 옳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때 중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데카르트는 근대적 사고를 연 인물이다. 그는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인간이 진리를 사유하는 주체라고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 생각하는 주체의 존재만 큼은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체를 독립적·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주체와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 사이에 불가피한 차이가 있고, 인간의 생각은 말(기호)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 말은 사람과 별개의 존재이면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간과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의 주체는 독립적·자율적 존재가 아닌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주체다. 데카르트 이후 칸트는 선험론으로 진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칸트는 우리의 생각 이전에 생각을 규정하는 선험적 틀이 있는데, 만약 이 틀이 보편적이라면 이 틀을 통해서 걸러진 사유도 보편적이라고 주장했다. 선험론은 데카르트의 직관론을 배격하고 ‘말’을 통한 분석적 사유를 정당화하면서 진리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아무튼 근대적 사고는 이 보편성의 토대 위에 과학주의의 돛을 세우고, 진화론과 마르크시즘의 노를 저어 진보라는 낙관의 바다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곧 근대적 낙관론은 산산이 무너진다. 실제 역사는 식민주의와 두 차례 참혹한 전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은 바로 이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근대적 사고의 모순만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 오히려 진리의 절대성은 물론이고, 보편성까지 부정하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이다. 말함으로써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말로 인해서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이 불완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을 통한 회복만이 말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물론과 진화론, 무신론과 과학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도도하게 흐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고후 10:4-5)이다. 이 사명은 우리가 다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서명수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특별기고

성탄절에 관한 성 어거스틴의 설교

초대 교회 시절부터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육신에서 발견되는 역설을 경이롭게 여겼다. 서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 성 어거스틴도 성육신에 경탄했던 이들 중 하나다. 어거스틴은 지금 알제리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한 도시 타가스테에서 354년 태어났다. 명석한 사상가였던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기독교가 지적으로 공허한 믿음이라며 거부했었다. 다양한 이방 철학들을 헤매고 다니던 그에게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스가 이방 철학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 알려 주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히포에 돌아온 후에는 주교가 되었다.

어거스틴은 뛰어난 웅변가였다. 암브로스를 만났을 때 그는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제기한 도전뿐 아니라 4세기 말 5세기 초 교회가 직면했던 신학적인 초미의 쟁점과 갈등 문제를 다루는 데 활용했다. 설교할 때도

자신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활용했던 그는 히포에서 주교로 있던 여러 해 동안 성육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다. 가장 강렬했던 설교에서 그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과 관련된 수많은 역설을 다뤘다. 예를 들면 서기 306년 이전 즈음했던 것으로 알려진 184번 설교에서 그는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을 취한 하나님 주권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구유에 누워 있다. 그는 말 못 하는 갓난아기이자 말씀 그 자체이다. 하늘도 감당 못 하는 그분이지만 한 여인이 품에 안고 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서기 411~412년경 했던 191번 설교에서 어거스틴은 성육신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더욱 강조했다.

“양식이 주된 자가 되며, 마르지 않는 샘이 목마른 자가 되고, 참 빛이 주무시는 자가 되며 참 진리의 길 되신 분이 여정으로 지친 자

가 되고, 참 진리가 거짓 증인에게 고소당한 자가 되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자에게 판단을 받는 자가 되고, 정의가 불의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징계하시는 이가 채찍에 맞으시고 영광의 포도송이가 가시관을 쓰고, 바로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 강한 분이 약해지며, 영원히 강건한 분이 상처 입고 생명이 죽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품에 안긴 아기가 되셨다.”

어거스틴은 당시 회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자주 간과하는 성육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는 성육신이라는 엄청난 비밀에 합당한 반응을 드릴 것을 바랄 것이다. 184번 설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을 마땅히 축하하며 함께 모여 기념합시다. 형제자매 모두 기뻐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남성으로 태어나셨지만, 여인에게서 나셨기에 모든 성별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받은 저주가 이 둘째 사람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판 것은 여성이었지만 또 다른 여성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 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된 육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 여기서 육체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육체를 더럽게 하는 죄가 문제란 점을 알 수 있다. 그 죄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육체가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좋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한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 덕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어거스틴이 성탄절에 관해 한 설교 모든 내용이 신학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성육신의 경이로움과 수많은 역설에 대해 했던 말은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면 좋겠다.

/ 존 스톤스트리스, 글렌 선샤인

원문: breakpoint(20231211)

“제자 요한 같은 교회를 소망합니다”

12번째 캠퍼스 ‘제주온누리교회’ 노규석 목사와 함께

제주도에 온누리교회가 생겼다. 제주온누리교회 ‘캠퍼스 교회 전환 및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지난 12월 18일(수) 본당에서 드렸다. 12번째 온누리교회 캠퍼스다.

제주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와 AMA(Acts29 Mission Alliance) 협약을 맺은 ‘드림교회’가 캠퍼스 교회로 전환됐다. 드림교회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선교훈련센터 JATC(Jeju Acts29 Training Center, 제주 Acts29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중국 및 동남아 기독교 지도자 및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제 ‘제주온누리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교의 도약을 이루려 한다. 노규석 목사가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그를 만나 제주온누리교회의 비전과 꿈, 포부와 소망 등을 물었다. 다음은 노규석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를 입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고,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주온누리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온누리교회와 비전을 함께 하며 열방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교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온누리교회에서의 목회와 사역, 특히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사방이 선교지입니다. 오른쪽에는 일본, 왼쪽에는 중국, 남쪽에는 대만과 필리핀이 있어서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는 중국 및 동남아 다수 국가의 무비자 입국(28일)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잠시 들어와 휴식과 훈련을 받기에도 적합한 곳입니다. 선교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선교적 장점을 마음에 두고 선교적 교회를 꿈꿔왔던 어느 장로님이 2013년 제주도에서 가정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정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꿈(Dream)’을 의미하는 ‘드림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드림교회의 요청으로 온누리교회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드림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비전을 함께 하며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껏 달려왔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드림교회가 함께 2019년부터 선교훈련센터 JATC(Jeju Acts29 Training Center, 제주 Acts29 훈련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JATC는 대소형 예배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식당, 세탁실, 카페 및 휴식공간, 숙소(2인실 22개)로 구성된 선교사 합숙 교육 시설입니다. 선교사들과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이 쉬를 누리고, 영성을 키우며, 선교 사명을 되새기는 공간입니다. 주일에는 차세대를 위한 교육관으로도 사용됩니다.

제주온누리교회는 늘 선교사들과 목회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매우 큼니다. JATC를 통해 아시아 선교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지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주온누리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로도 오래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제주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부임하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선교하다가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M센터에서 사역하는 게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목회에는 은사가 없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선교하다가 은퇴할 거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선교는 오래 했지만, 설교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회를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제주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요, 부족한 부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과분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온누리교회 담당목사는 저에게 정말 과분하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미 선교적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에 저는 발만 담그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온누리교회를 멋진 교회로 가꿔오신 성도님들과 전임 목사님들께 폐가 되지 않도록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며 사역하려고 합니다. 제주온누리교회가 새 이름을 얻었듯, 저 역시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기쁨과 겸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온누리교회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 포부와 소망을 선포해주시지요.

“우선 따뜻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고, 교

제하며 친해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지내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한 온기가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더 많은 영혼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은혜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온누리교회하면 ‘선교’를 지우려야 지울 수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강요해서 하는 선교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연스럽게 선교 열정을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부다비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故 하용조 목사님이 ‘사역 많이 하려고 하지마. 선교 많이 하려고 하지마.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하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온누리교회 목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서 주변 교회를 돕고, 이주민들을 돌보고,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받도록, 은혜받은 만큼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의 창구인 말씀과 예배에 전념하려 합니다.

제주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주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따라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막내로 총애를 받았던 요한처럼, 제주온누리교회도 형님 교회들을 잘 따라가면서 온누리교회의 기쁨이자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진리를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 요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온누리교회(오른쪽)와 제주 Acts29 훈련센터(왼쪽).

12번째 캠퍼스 제주온누리교회 담당목사 부임을 축하합니다.

“부족한 중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온누리교회와 반갑게 맞아주신 제주온누리교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사랑과 정이 많고, 열정적으로 사역과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분들과 함께 목회할 기회를 얻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주온누리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AMA(Acts29 Mission Alliance) 협약을 맺고 동역하며 형제 교회로 지내온 드림교회가 온누리교회 캠퍼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한국독립교회선교연합회 소속으로 있던 드림교회가 ‘제주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누리교회 열두 번째 캠퍼스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랴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그들을 더 깊은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주온누리교회도 새로운 이

영화와 찬송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비고 요한센의 ‘메리 크리스마스’와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매년 12월이 찾아오면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이 켜지고, 성탄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우리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スイ브를 꿈꾼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주는 이 계절만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때 행복 가득한 크리스마スイ브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나다면 어떨까? 오늘 소개할 작품은 1890년대 덴마크 미술계의 저명한 화가 중 한 명이었던 덴마크 화가 비고 요한센(Viggo Johansen)의 ‘메리 크리스마스(A Merry Christmas)’다.

비고 요한센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덴마크 화가 특유의 북유럽 감성과 크리스마스의 온화한 정서를 담아낸 작품이다. 그림을 보면 화면 중앙에 놓인 크리스마스트리에 첫 시선이 간다. 장식이 가득한 트리는 은은한 빛으로 방안을 물들이며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밝혀준다. 트리를 둘러싸고 둥글게 손을 잡은 아이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평화로운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어두운 방안에서 촛불의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이 감상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요한센의 섬세한 빛의 표현이다. 빛은 단순히 크리스마스트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 전체를 아늑하고 따뜻하게 채우며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트리를 중심으로 둥글게 손을 잡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분위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서 마치 그림 밖으로 캐럴 선율이 흘러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요한센은 화폭에 크리스마스의 소리와 분위기까지 담았다.

온 누리 사람들과 성탄의 기쁨을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 짓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대로 이 행복한 순간을 즐기고 있다. 어떤 아이는 크리스마스트리의 빛나는 장식을 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신나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춤을 춘다. 누군가는 경건하게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이 특별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반짝이는 트리와 선물만 의미하지 않는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의미한다. 서로 보듬고 사랑 나누는 순간을 뜻한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디테일이 보인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중앙에 두고 아이들과 엄마 그 누구도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견고하고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하나 되고 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나이 든 여성이 홀로 서 있고, 오른쪽에는 남성의 석고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가족의 화목한 원 안에 속하지 않고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요한센은 이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이면을 드러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부재와 소외가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조차 성탄의 빛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다. 크리스마스트리에서 퍼지는 따뜻한 빛은 방 구석구석까지 닿아 그림 속 모든 존재를 포근히 감싸며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는 크리스마스가 가진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다. 우리가 행복해하며 축하하는 이 날의 기쁨을 온 누리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 아닐까?

비고 요한센(Viggo Johansen, 1851~1935)은 덴마크 스카겐 화파(Skagen School)를 대표하는 화가다. 스카겐 화파는 19세기 말 덴마크 북부의 작은 어촌 마을 스카겐에서 활동하던 예술가 그룹으로, 자연주의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유명하다. 스카겐은 북유럽 특유의 차분하고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화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요한센은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았지만, 정형화된 아카데미 교육이 맞지 않았던 그는 졸업을 포기하고 스카겐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스카겐의 자연과 사람들을 화폭에 담으며 자연주의와 인상주의를 절묘하게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요한센의 초기 작품은 대체로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 전시회를 통해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자기 작품에서 빛과 색의 활용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변화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빛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의 예술적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풍경을 넘어서 작품이다. 이 그림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이 중심이 되는 날이다. 요한센은 아내와 여섯 자녀를 둔 가정으로서 크리스마스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축복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가장 아름다

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 작품은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고요한 밤’이다. 그래서 그런지 필자는 이 그림을 보면 늘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들리는 듯하다.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성가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근 작은 마을 북부사로 부임한 요제프 모어가 가사를 지었고, 1818년 크리스마スイ브에 교회 오르간 연주자 프란츠 그루버에게 곡을 의뢰했다고 한다. 지금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오번도르프에는 고요한 밤을 초연한 교회가 있는데 ‘고요한 밤 예배당’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 찬송가는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성가인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 들어가 대치 중이었을 때 크리스마スイ브가 되었다. 그들은 참호 속에 작은 트리를 만들고 잠시 마음을 달래며 안정을 찾았다. 영국군 병사 앨버트 모런은 “달이 밝게 비치고 땅엔 하얗게 서리가 앉았죠. 세상이 온통 하얗어요. 그런 가운데 저녁 7시인가 8시경에 노래도 들리고 떠들썩해졌어요. 적군 참호 여기저기 불이 켜졌는데 영문을 몰랐어요. 잠시 뒤 적지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들렸죠. 그날 그 캐럴을 들으며 몽클했던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였죠”라고 증언했다. 앨버트를 비롯한 영국군도 그 찬양을 따라 불렀고, 즉석에서 캐럴 합창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전쟁 중에도 잠시나마 평화와 연대의 순간을 만들어낸 이 곡은 크리스마스가 가진 치유의 힘을 상징한다.

비고 요한센의 ‘메리 크리스마스’와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마치 서로를 완성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그림 속 따뜻한 촛불의 빛은 찬송가의 선율처럼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며 성탄의 기쁨을 전한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반짝이는 트리와 선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의미한다. 서로를 보듬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을 뜻한다. 요한센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그림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서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잔잔한 선율처럼,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 곡을 노르웨이의 가수이자 북유럽의 천사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시셀 슈사비(Sissel Kyrkjebø)의 음성으로 들어보자(QR 참고).



맛있는 말씀 해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엡 1:23).

바울은 참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에게 교회와 성도는 사역의 원동력과 동시에 기도의 제목 그 자체였다. 그래서인지 이 시대 영성이 필립 안시는 교회를 두고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바울에게 교회는 언제나 삶의 중심이고, 고민의 대상이며, 사랑의 원천이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린다.

첫째,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다.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감사한 이유는 에베소교회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곳이다. 세상은 즐거움과 쾌락, 이익을 좇지만, 교회의 본질은 믿음이다. 서로서로 믿음의 성장

을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다.

에베소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공동체였지만,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3년 동안 목회하며 변화했다. 그들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눈물과 기도의 열매를 확인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기도가 흘러나온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영광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

나님을 알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는 세상 종교들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선다. 삶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이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셋째, 하나님의 유업과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기도였다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위대함을 알게 하는 기도이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이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그 자체이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는 부활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새롭게 하신다.



김재승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

12월 23일~12월 29일
성탄절 QT: 〈요한계시록〉
20:11~21:27



목상 포인
인트 1: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구유에 누이셨다. 그 아기는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낮아짐, 비움, 겸손, 온유, 희생 등을 되짚어 보고 그분의 낮아짐이 내게 어떤 복을 선물했는지 묵상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한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겸손히 순종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한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다.

밤에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는다.

목상포인트 2: 성경은 최후 심판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한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행위를 점검하며 묵상하자.

▶요한은 최후의 심판인 흰 보좌 심판을 본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그 앞에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최후의 심판으로 사망과 음부,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는 둘째 사망이다.

목상포인트 3: 성도의 최종 소망은 영원한 본향이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시며 고난을 겪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자와 그러지 못할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묵상하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에 더는 사망과 애통이 없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지만,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양의 신부이자 아내다. 진기한 보석들로 표현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으로 인해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속된 것, 가증하거나 거짓된 자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가 영원한 안전을 누릴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천사가 전한 말에 온전히 순종한 마리아처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으로 응답하자. ▶예수님의 낮아짐과 비움이 내게 어떤 복을 선물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로 다짐하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행하자. ▶날마다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자.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평생 견고히 하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브릿지 33+공동체를 위하여!

‘브릿지 33+공동체’(이하 브릿지 33+)는 33~49세 사이 미혼 남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매주 일요일 하용조 기념홀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브릿지 33+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도해주시요. 브릿지 33+지체들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요.

브릿지 33+의 지체들을 위해 애쓰시는 윤마리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요. 목사님은 공동체의 많은 지체를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며, 매주 홀로 예배를 이끌고 계십니다. 윤마리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요.

브릿지 33+는 매년 연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리트릿을 합니다. 리더십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새해를 준비하도록 기도해주시요. 덧붙여 멘토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한분 한분 지지치 않도록 기도해주시요. 브릿지 33+에서 12월 22일(일) 만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초청하는 ‘성탄초청에 배(기)다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주시요. 초대된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시요.

/ 최태형 멘토(서초A공동체)



목사님, 질문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영적 원칙

다른 조건은 너무 좋운데 주일 성수를 지키기가 어려운 직장입니다. 이직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직업'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직업'을 말하는 영어 보통명사 'vocation(보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부르다', '목소리'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 'vocare(보카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일은 직업 이상의 의미와 고백으로 다가올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조건'과 '주일 성수'라는 가치와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비롯됐는지 면밀하고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인식은 우리가 바른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주일 성수를 지키기 어려운 직장임을

알고도 다른 좋은 조건이 내 눈에 크게 보여서 그 직장을 선택한 경우다. 이 경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우선순위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다른 가치를 선택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하나님 보다 귀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좋은

있어서 부르신 것이라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온누리교회에 '토요주일예배'가 있다. 청년의 경우라면 토요일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도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보이기 마련이다.”**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은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원래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상황과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보이기 마련이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여러 영적인 고투를 경험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난다. 진로, 관계, 직장 내 거룩한 삶 등 실제적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고 들을 때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저마다 처한 직장의 상황이 다양하고, 직장 내 얽힌 관계의 양상이 달라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대담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영적인 원칙은 분명하

다. 우리가 일터에서 팍 흘리고, 수고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사명의 자리이다. 어떤 이에게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곳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고백할 수 있는 곳이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다. 내가 일터에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이루실 거라고 고백했다(살전 5:24).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정한호 목사(W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맞춰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부에게는 서로 맞춰가야 할 많은 영역이 있다. 서로 잘 적응하고 맞춰가는 부부는 만족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계속 부딪히는 부부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결혼 생활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끊임없이 맞춰가야 하는 길고 긴 과정이다. 이 과정이 어떤 때는 몹시 즐겁다. 나와 다른 또 다른 나를 수용하며,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의 극치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 떨리고 행복한 경험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상대에게 맞추는 게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 힘겨움이 쌓이고 쌓이면 상대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부부는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어쩌면 평생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부부가 서로 맞춰가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수용과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한다. 남편과 아내가 역할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가 다를 수 있다.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 역할을 인식하고 결혼한다. 반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자유로운 역할 인식을 한다. 부모에 대한 역할 인식에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모 역할 인식에 따라 행동하고 배우자에게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요구하

게 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유연성 있게 수용하지 못하면 깊은 갈등을 겪는다. 결혼 생활이 뼈저리게 된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관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결혼 생활 만족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게 당연하다. 경직된 역할 인식을 하는 부부일수록 결혼 생활 만족감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전통적이라면 고정된 틀이 강하다는 의미다. 남편은 당연히 가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역할 인식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부부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통적인 역할 인식을 하고, 아내는 자유로운 역할 인식을 한다면 부부 관계의 갈등과 긴장이 증폭될 것이다.

부부가 결혼 만족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역할 인식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고정된 틀에 자신과 배우자를 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결혼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특별한 장(場)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가 가진 역할 인식에 관해 깊은 나눔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자신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대로 역할에 대한 인식이 고정될 수 있다.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아빠의 역할이 매우 경직되고 강압적이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남편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해!' 혹은 '아빠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해!'라는 인식이 마음에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강한 아빠 역할이 지배했던 가정일 경우 엄마 역할은 회피나 억압의 모습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엄마를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엄마의 역할은 이러해야 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을 수 있다. 강한 아빠의 모습과 회피하고, 순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결혼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거 부모의 모습대로 아내와 남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보고 경험했던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모습, 즉 성역할의 직간접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가사와 육아는 온전히 엄마의 역할이라고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 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내에게 책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가정경제는 당연히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역할 기대가 있는 아내라면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남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계속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고정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부부 사이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하는 집안일을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식으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집안일은 함께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내가 더 업무를 분담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서로 묻고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짐을 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서로의 역할에 불만이 있다면 더 깊은 나눔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기대하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봐야 한다. 남편은 자신의 내면에 각인된 남편과 아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적인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새로운 아빠와 남편 역할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만들어야 한다. 아내도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고정됐던 역할을 뛰어넘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새로 그려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부는 자신의 역할과 배우자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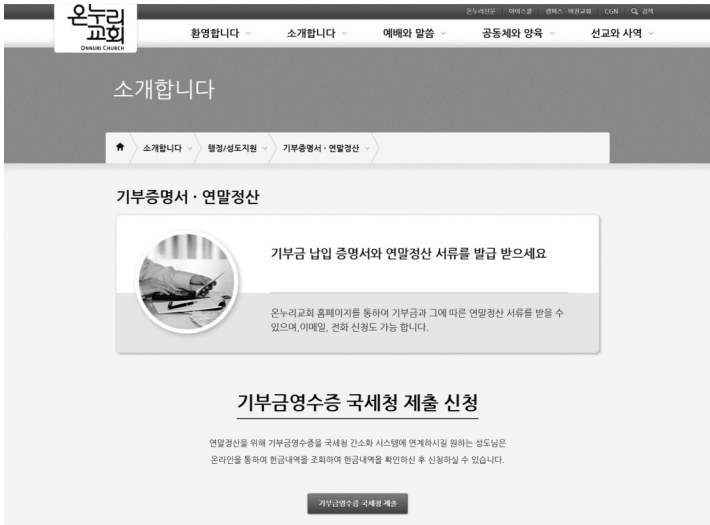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계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명 후 재정국 제출...온라인, 홈페이지서 이용가능

온누리교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한다. 교회에 헌금하는 성도 중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 연계되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연계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기부증명서·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연계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서명해서 재정국에 제출해야 한다. FAX(02-793-9709)나 이메일(onnuri.finance@outlook.com)로 보내면 된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자료에 온누리교회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된



온누리교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 이전처럼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기부증명서·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발송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CGN과 NGO 더멋진세상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다. CGN은 후원 홈페이지(give.cgn.tv), 국세청 홈택스, 전화(02-796-2243), NGO 더멋진세상은 온라인(www.abetterworld.or.kr), 국세청 홈택스, 전화(02-2271-2248)로 신청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오! 마이 박스' 인도 편 공개

12월 25일 TV, 유튜브, 기독 OTT '풍당'

CGN 콘텐츠 '오! 마이 박스' 인도 편을 12월 25일 TV(오전 10시 30분), 유튜브(오전 10시), 기독 OTT '풍당' (자정)에서 공개한다. '오! 마이 박스'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인들의 응원을 전하는 힐링 콘텐츠다.

CGN '오! 마이 박스'가 이번에는 인도를 찾아간다. 주인공은 인도 나비

뭉바이에서 30년째 사역하는 공숙자 선교사다. 빈민가 구제와 교육 사역에 주력해 온 그녀는 내년 은퇴를 앞두고 있다. 개그맨 김기리가 사역지를 방문해서 공숙자 선교사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그녀의 30년 선교사역을 돌아본다.

CGN '오! 마이 박스'는 제16회 한국기독언론대상 해외 선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홍하영 기자

CCF '더 멋진 당신' 콘서트 'The Very Witness'

이재훈 위임목사, 이재욱 회장 등 470명 참석

CCF(Christian CEO Forum)가 주최하는 CEO 맞춤형도전대회 '더 멋진 당신' 콘서트가 지난 12월 15일(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The Very Witness' (바로 그 증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CCF, CEOSchool 관계자 등 470명이 참석했고, 전도대상자 중 약 80여 명이 결선했다.

이재욱 회장(CCF 회장)은 "CEO 맞춤형도전대회 '더 멋진 당신' 콘서트에 참석한 모든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박지혜 기자

탁구인 맞춤형도전대회 '핑퐁 in Love' 성료

29명 결선, 20명 세레 신청, 33명 온누리탁구선교회 관심

2024 탁구인 맞춤형도전대회 '핑퐁 in Love'가 성료했다. 지난 12월 14일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도자, 전도대상자, 전도사역본부 리더십과 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4 탁구인 맞춤형도전대회 '핑퐁 in Love'에서는 가수 하다쉬 뮤직, 색소폰 연주자 심삼중, 가수 이무송 공연, 양영자 선교사(88년 서울올림픽 탁구복식 금메달리스트, 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안재형 감

독(대한탁구협회) 토크쇼, 여성민목사 설교, 결선, 세레머니, 축복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전도대상자 29명 결선, 20명 세레 신청, 33명 온누리탁구선교회 관심을 보였다.

2023년 시작된 탁구인 맞춤형도전대회 '핑퐁 in Love'는 전도자들과 전도대상자들이 함께 운동하고 어울리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아가는 축제다.

/ 홍하영 기자

마크AI팀 비영리 특별상 수상

2024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결선 대회

온누리M센터 마크 AI팀이 지난 12월 7일(토) 열린 2024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결선 대회에서 비영리 특별상을 수상했다.

마크 AI팀은 이주민들과 의료 선교진을 연결해 주는 다국어 디지털 의료 어플을 개발했다. 이 어플을 사용하면 12개국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줘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이주민들에게는 자국어 처방전을 제공한다. 또한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의료 차트만 가능한데, 단기선

교를 위한 오프라인 의료 차트도 개발 중이다.

마크 AI팀의 윤정권 대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주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작은 어플이 선교에 보탬이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국내외 사회 이슈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청년을 위한 벤처 대회다. / 박지혜 기자

사랑챔버 창단 25주년 기념 콘서트

온누리 사랑챔버오케스트라 창단 25주년 기념 콘서트가 12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63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12월 22일(일) 오전 10시 50분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에서 열린다. 올해 차세대 독후감 대회에서는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고민하고, 그 내용을 독후감으로 써서 제출했다.

12월 세레자

■서빙고	김연아 230902
김은율 110330	김민호 강세미
김정호 670113	신유하 240908
김하율 080516	신예반 이현지
민숙기 770220	원다안 200522
박한영 841202	원세연 김승민
안은영 090115	장수아 221008
유사랑 080718	장재현 김근하
이시은 091221	장주원 240606
이주강 890502	장재영 윤숙영
장서연 100215	조은결 240202
최유진 080910	조재현 박혜연
최희성 060520	최시은 210716
홍지은 731219	최영호 김민하
유아	홍서진 230629
김시안 231210	홍준기 이예지
김승완 김나령	

2024 한국어 말하기 대회 4명 수상

서빙고 한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서빙고 한글학교가 개최한 '2024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4명(초급, 초중급, 중급, 고급 부문)이 수상했다. 2024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지난 12월 15일(일) 신동아쇼핑센터 301호에서 열렸다. 서빙고 한글학교 학생과 교사, 내빈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몽골, 네팔,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한국어 식생활', '한국 유학생', '김치

담그는 법', '버킷리스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나레(초급), 임서라(초중급), 텐나타사(중급), 자화(고급)가 수상했다. 심사는 이비오 목사, 원우현 장로, 이영복 장로, 김소영 교사가 했다.<관련 칼럼 10면>

한편 서빙고 한글학교 교사를 모집한다. 유학생과 이주민들에게 한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성도들은 전화(010-5337-3619)로 신청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 2월 1일 오디션

장로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에 제한이 없다. 장로합창단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2025년

1월 31일(금)까지 전화(010-5264-1191)로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은 2월 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실시한다. 문의: 010-5264-1191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한동대학교와 MOU 체결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2월 6일(금) 한동대학교와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구, 인력,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협력체제 구축이 목적이다. 인적자원 교류와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로케이션 학기 지원, 사회공

헌 활동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국제 개발 협력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통로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이웃들을 전문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역칼럼

해리 목사와 함께 복음 전파합시다!



임현태 장로
(남양주온누리교회)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40일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와 인도를 다녀왔다.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사우디 리야드에 체류하면서 매주 출애굽 여정이 있다고 하는 타북지역과 알울라지역을 답사한 것이 크게 기억에 남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총 13군데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내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산의 7부 능선부터 겹겹이 쌓여진 봉우리가 시내산이고, 옆에 붙은 봉우리 중턱에 엘리야의 동굴로 추정되는 큰 동굴이 있는 산이 호렘산이라고 한다. 산 아래에는 금송아지 제단으로 추정되는 바위 무더기가 있고, 바위마다 송아지 암각화들이 새겨져 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 10:26)는 말씀대로 진짜 시내산이 어디인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다음 목적지는 인도에 있는 해리 목사의 집이었다. 해리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10년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일대일제자양육

을 통해서 양육 받고 철저한 힌두교에서 회심한 형제다. 그는 현재 고향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만든 책이 〈해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임현태 지음)다.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는 나라, 동물도 생물도 무생물도 신인 나라에서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 교회를 세운 해리 목사는 자동차로 20분 떨어진 두 곳에 기도처를 개척했다. 목요일과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는 90여 명이 나와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들은 가족 단위와 여성, 특히 아이들이 많다. 다섯 평도 안 되는 해리 목사의 집인 가정 교회에서 30여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자기 가정을 기도처로 제공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초대교회가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예배드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대로 해리 목사는 가족을 구원하고 지경을 지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해리 목사의 집에 도착한 다음 날, 그의 아들이 내년 1월 7일 결혼할 자매 집을 방문하자고 했다. 자매의 어머니는 목사님의 기도로 불치의 병을 치유 받아서 모든 가족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한다. 자매도 15세부터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결혼 이후에는 찬양사역자로 섬길 예정이다. 다음 날은 이곳에서 근로자로 있다가 돌아간 형제들 가정을 방문했다. 한 형제는 예수

님을 구주로 영접할 생각이 많은데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했다. 해리 목사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예배드리기를 요청했고, 모두 승낙했다. 또 다른 형제 집을 방문했다. 세례받고 돌아간 형제인데 안타깝게도 완전한 힌두교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새벽마다 일어나 힌두교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향을 피우고, 원숭이 신인 하누만을 믿는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자기 아내가 철저한 힌두교인이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자기 아내를 전도하는 것이 두려웠던 같다. 그 형제가 없을 때 나와 아내가 그 자매와 얘기를 나눴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정곡을 찌르고 들어가야 한다. “원숭이도 코끼리도 나무도 신이라고 믿는 것이 맞나요? 그런 것들이 신이라면 자매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그 신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요?”라고 물었다. 자매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잠시 뒤 자매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서 결코 만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자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매의 얼굴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좋은 전도자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한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해리 목사의 가정교회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복음의 불모지인 북인

도 지역, 힌두교의 성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곳에 성도가 계속 늘어 가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너무 좁다. 해리 목사가 한국에서 번 재정으로 땅 50평을 사놓았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건물물을 짓든지, 아니면 부지 100여 평을 매입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마침 사돈이 종잣돈을 후원해 주셨는데 더 많은 동역자가 참여하기를 기도한다. ‘10/40 창’(선교단체들이 규정하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무슬림보다 많은 미전도종족과 인구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후원 문의: 010-5261-7286



해리 목사의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 수상작



/ 윤한중 성도(온누리선교재단 양재기관팀)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인물이 바울일 것이다. 복음서를 제외하면 바울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를 관람하기 전에 바울의 활동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았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일생일대의 극적인 사건을 접한다.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이 장면은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가슴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다.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악귀의 화신인 양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던 그의 행보에서 놀라운 변화를 본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한순간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심을 통해 예수의 사랑으로 스테반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며 던진 바울의 고백이 내 가슴을 울렸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불의의 권력에 편승해 옳고 그름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헤매던 그에게 비추어진 강렬한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깊은 참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요, 사랑의 빛에 대한 용서

와 화해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 받았음에도 그를 짓누르는 살인자라는 마음의 짐은 벗어버릴 수 없었다. 특히 스테반의 가족과 아니스타의 증오의 눈길이 그를 괴롭게 했을 것이다.

뮤지컬 〈바울과 나〉를 보면서 스테반을 사랑하는 여인 아니스타를 등장시켜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를 끌어낸 놀라운 영감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자비는 놀랍기만 하다. 증오로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장벽이 하나님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뮤지컬 〈바울과 나〉를 감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현실은 많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으면 상대를 경계하고 배척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바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니스타, 이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모든 응어리가 사라질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갈등으로 아픈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 수상작



/ 전희선 성도(인천온누리교회)

그 사랑과 복음은
큰 힘이 있다!

2024년은 1월 시작부터 11월까지 〈사도행전〉 본문이 예배 설교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한 해였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바울의 단단한 믿음은 어떤 동기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왜 나는 바울과 같은 열정이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다.

순에서 만난 동역자 언니의 지인을 통해서 뮤지컬 〈바울과 나〉 공연을 관람했다. 본문으로 배웠던 말씀을 뮤지컬로 마주했더니 그 말씀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다. 말씀과 내 삶의 시간적 간극이 좁혀지고,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뮤지컬 〈바울과 나〉를 보면서 말씀을 무대 위 인물의 삶으로 깊게 묵상할 수 있었다.

뮤지컬 〈바울과 나〉는 로마제국에 제물로 끌려오던 노예 ‘아니스타’를 병사들의 손에서 ‘스테반’이 구해 주면서 시작된다. 제사장 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스테반을 처형한다. 그 사건에 가담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도 여행을 지속한다. 스테반을 사랑했던 아니스타는 바울에게 분노하지만 결국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한다.

가장 여운이 남았던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스테반의 연인 아니스타였다. 연인을 죽인 바울을 증오하고, 용서와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 저의 힘으로는 용서와 사랑함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음성에 순종하고 시선을 주님께 두며 살아갈 때 부여 주시는 능력을 압니다. 제 마음을 분노, 미움 등 어두운 마음의 폭풍이 장악하지 않도록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라고 기도로 고백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은 큰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높아졌던 마음을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으면 우리의 일그러지고 상처난 마음들이 그분 안에서 치유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은 인생의 여정을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고 동역자를 꼭 붙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스타 옆에서 함께 중보하는 그의 시어머니 크리스티나,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 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 나의 동역자 유리 언니, 그리고 뮤지컬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까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깨닫도록 열정을 다해 연기한 배우들에게도 감사사를 전한다.

장로칼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야기

원우현 장로
(서봉고공동체)

1997년 설립된 온누리교회 한글학교는 모임 장소를 여러 번 옮겨 다녔다. 말구유처럼 좁은 지하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마침내 올해 10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사했다. 신동아쇼핑센터 3층, 한강이 보이는 넓은 사

무실이다.

지난 12월 15일 11시 20분 새 사무실에서 열린 ‘2024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2003년부터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교회의 배려로 좋은 장소에서 모이게 된 데 대한 감사가 넘쳤다.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축제 분위기가 그득했다. 네팔 중창단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으로 대회가 시작되면서 모든 참가자가 마치 하늘 잔치로 초대받은 듯한 흥분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십 년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은 나도 웬지 마음이 들떠 정확성, 유창성, 다양성에 대해 각각 10점 만점으로 꼼꼼히 채점하기가 쉽지 않았다. 발표자의 말하기 능력보다 주제와 그 내용에 담긴 고난과 열정, 의지가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돼 단편적으로 저울질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의 식생활’, ‘한국 유학 생활’, ‘한국인의 특징’, ‘김치담그는 법’, ‘우즈베키스탄의 복음밥 만들기’, ‘러시아인 예수+ 클럽 이야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버킷리스트’, ‘이삿집센터 일화’, ‘몽골의 영화 40도 겨울 준비’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발표했다. 그 내용이 모두 흥미로워 자연스레 경청하게 됐다.

그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삶의 여건이 빈

약한 이방 땅인 한국에서 부딪치는 처절한 생존 경쟁을 실감하기도 했다. 이방인 발표자의 말과 표정에 희로애락이 그대로 드러날 때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 공감하면서 감동의 물결이 솟구쳤다.

대회 참가자 중에는 자기 나라에서 전직 경찰, 검사, 생물연구원을 지냈고, 한국에 와서 대학원에 다니는 등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혀 놀림 때문에 사소한 음절의 변색이 일어났다. 그중 몇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영주권-연주권’, ‘설교-설구’, ‘봉사-분사’, ‘교육-고육’, ‘공장-곤장’, ‘온누리교회-오늘이교회’, ‘너무 그림다-나무 그림다’ 등이다. 발표자들의 한국어 발음이 혀끝에서 둔탁해도 온 마음을 다해 발표하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도전받는 생활을 그대로 간증할 때마다 청중들은 한국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올해 한국어말하기 대회 참가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네팔, 몽골, 인도, 중국에서 온 근로자나 유학생들이었다. 온라인 학습을 해온 콩고, 캄보디아, 파키스탄 학생들은 영상으로 발표했다.

현재 한글학교 학생은 35명, 교사는 81세 최고령 교사를 포함해서 16명이다. 한글학교를 섬기는 이비오 목사님과 강을구 장로님,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가 이루어낸 열매다. 한 영혼한 영혼에게 일대일로 한글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도록 애쓰는 그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

심사를 마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이 떠올랐다. 대부분 외국인이 한국 땅을 밟을 때 돈과 학벌과 세상 명예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들이 돈을 벌고 한국 시민권을 얻는 것도 좋지만,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권사칼럼

세상과 하나님 연결하는 통로

이희련 명예권사
(강남E공동체)

명예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 노력의 어느 교수님이 “젊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늙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의 40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한 것이 생각났다. 나는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다. 그러다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결혼 이후 병명 없이 몸에 통증이 와서였다. 주위의 권유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에 나간다고 아픈 것이 바로 낫지도 않았고, 교회에 나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큰아들인 남편과 나에게 제사 문제가 다했다. 남편은 제사를 추도예배로 드릴 만한 믿음이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형제들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댁 형제들과의 우애 때문에 제사를 추도예배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다니기 시작한 교회였지만 아픈 곳도 낫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회 직분 가진 자들의 나쁜 행동에 실망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일까?’라는 의문이 피어오르며 믿음이 점점 식어갔다. 그렇게 17년이 흐르고 아들이 사법고시 원서를 처음으로 낸 대학교 3학년 때 강박증세가 왔다. 병원에서는 고시를 포기하지 않으면 병 치유가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에

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성실한 아들이기에 이듬해 1차 시험에 합격하면서 희망이 열렸다. 하지만 2차 시험을 두 번 불합격했고, 면접으로 보는 대학원마저 떨어졌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새벽기도를 시작했고, 성경일독과 성경통독을 하면서 말씀이 내게 와닿았다. 마치 흩어졌던 구슬이 꿰어져 하나의 보석이 되듯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성경공부와 일대일제 자양육, 순장으로 섬김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서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나 아들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할 때나 그리고 지금, 명예권사 임직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인도하셨다. 아들이 아플 때 남편은 제사를 추도예배로 드렸고, 추도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시동생들의 주장이 있어서 아들의 고시 합격 후에는 제사를 시동생 집으로 보냈다. 그 이후 남편은 많은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지금은 부부 순예배에 함께 나가고 있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아팠던 몸도 점차 회복되어 젊은 시절보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앞으로 이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번 명예권사 임직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한다.

신앙에세이

박성원 전도사
(SNS공동체)

2023년 12월 17일 SNS청년부에 부임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때 떨림과 설렘이 있듯이 새로운 공동체를 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일까? 어떤 청년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하며 새로운 공동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부임 당시 뮤지컬 ‘쉐어하우스’의 무대장치로 ‘문’이 무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 문을 열면서 인사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청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 청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데 아직 꺼지지 않은 이 불을 계속 키워가

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청년들의 열정은 예배에서 드러난다. 청년들의 예배에는 에너지가 있다. 여름에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어도, 더 켜 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열정이 가득하다. 찬양 인도로 섬길 때면 회중의 소리가 너무 커서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늘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있다.

겨울과 여름에는 국내외 아웃리치를 떠난다. 각자 소중한 휴가를 사용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휴양지나 관광지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휴가 때 어디 다녀왔어?”라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당당히 “선교 다녀왔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는다. 2024년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 내는 것이다.

나는 올해 여름 몽골과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두 곳 모두 더운 나라였고, 사역 기간 내내 에어컨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웃리치팀원 누구도 불평이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맑은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스리랑카 아웃리치에서는 그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기계 앞에서 솜사탕을 만들었다. 솜사탕의 인기가 많아서 대기 줄이 줄지 않았다. 길어지는 작업에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아직 솜사탕을 못 받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모두 받을 때까지는 계속하겠다”였다.

몽골에서는 쟁겨 간 지사제가 부족해서 현지에서 구매했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청년

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내가 더 할 테니 쉬어”라면서 서로를 배려했다. 아웃리치에 참여했던 이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나라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예배와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순장, 다락방장, 사역팀장, MC 등 공동체의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고 있다. 각자 역할에 맞게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한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곳에는 희망이 있다.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고, 타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청년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꺼지지 않은 청년 세대 열정의 불

국내 온누리교회 ●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06-6500 17085 용인시 가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유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원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0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sabasi	Chuoku Osakas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홍서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DA DAIAI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후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김기항	강우순	강지영	고길현
권윤경	김해영	김도용	김정웅
김남규	김재국	김성태	김지성
김성결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승민	김용산	김윤식	김요혜
김재석	김홍진	김희진	김종현
김태웅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종우	김창호	김정국	김현철
김홍수	노지형	노혜태	염문홍
문영재	박근봉	박성은	박성진
박정석	박천준	박태영	박영호
배해삼	백성우	변대식	서경남
송성근	송동원	송재호	신기석
송승진	신원석	신현민	신보석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인범	양영조	여성민	오 민
오근우	오재국	유진아	유현록
윤미자	유현우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준호	이광호	이거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은식	장동원	장재영	전병배
임정호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호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우	정희진	최희성	제재윤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현수
조진민	최대웅	최성규	최성민
최현미	최용준	최재용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유시키	하성희
황지훈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선진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종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성하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부목사(준전임)
권오학 구철톨 조승연 화조연

▲경배와 차양 모히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법설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하정근

◆부모사(파트)

가 나	강지중	김동규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민
김진숙	김종규	김종영	김태수
김혜경	네트라	홍혜경	마지수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생애비	안한균	양현수	유일배
예리머	클스틸	이강형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정형	이진영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장광석
정요한	제완선	손준아	최정현
하희경	황여신		

◆전도사(파트)

강귀공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고구리	고병호	강대식	강영찬
고재범	권보라	김한솔	김기하
김기태	김동우	김민준	김미리
김민수	김승희	김민지	김예담
김예찬	김소셉	김상진	김진희
김시현	김하은	김준수	나가나
마사토	나혜	나희민	나희윤
박미애	박성	박성훈	박요한
박유진	박은희	방예린	
박지현	배준우	서해진	
손유리	송영호	심은섭	
안두택	오정덕	오성광	
오영원	오진우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길동	윤서부
윤조현	윤종연	이나은	이도열
이봉준	이미진	이미규	이만석
이서현	이소라	이시하라	
이연찬	이미희	이재용	이진수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한	이원준	이휘영	임경미
임도원	임정수	장진우	장영주
전미연	정기은	정상원	정영연
정민희	정은영	정현준	제영민
조경화	조슬기	조우현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지우찬	차선일
최강호	최규종	최준하	최희훈
최은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하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홍혜라			

◆사역장르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나식	김나열	김명준	김명철

김미훈	김상섭	김석민	김선대
김선배	김성목	김순수	김상안
김수광	김수익	김수용	김영수
김수완	김용성	김 우	김용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이근건	김원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수	김재형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준
류지연	문건기	문창국	문창호
박복선	박문기	박 공	박병익
박병대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	박성현
박용국	박우형	박원현	박찬민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성운	배진호	배 문	배성현
서승철	서호준	서하곤	서창성
손한기	송문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영익	송재길	송창도
신민인	신영학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대환	안성익	안용대	안영수
안태환	양승일	양주원	양주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봉호	유원영
유재원	유 형	유기훈	유성진
유기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철한	윤영진	이강범
이건재	이영환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득
이성기	이수덕	이민수	이명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재호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정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현열	이현중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안희	장충준
전구영	정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영민	정병근	정보태
정성훈	정진표	정용화	정재원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국상
조성근	정하진	정진하	정희조
최재원	최호진	최희동	주우일
주용일	최승철	차준구	차준환
최영무	최진성	최덕진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주	한갑수
한기중	한덕주	한백운	한희하
한홍대	한정국	한형식	함광식
한신호	하광수	홍병선	홍종일
홍기영	홍희표	홍성식	홍충철
홍정표	홍희남	황우연	황우성

양의서	장로	강부승	강상훈
◆시흥	강동수	강종도	강창제
강신외	강은철	강종도	강영주
강대옥	고길범	고대익	고영주
광범철	곡진성	곡대익	곡희준
구자엽	권순형	권오승	권호철
권현하	금세준	김경동	김경환
김동언	김광훈	김기섭	김기환
김두진	김도영	김동우	김동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세	김병환
김상균	김성집	김성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성욱	김신원	김영환
김영순	김영욱	김영옥	김영환
김영호A	김영호	김영찬	김영기
김영호B	김영호	김기준	김종민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준환
김종완	김종호	김준기	김준환
김지홍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철
김형석	김형주	김형준	김희선
김희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나영현	남상진
남양철	남정진	남정현	노경환
노기홍	노하수	노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성식
민문기	박구병	박문기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철	박성길	박승길	박용익
박영환	박성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지완	박하진
박 회	박학구	박형민	박희선
방창종	배기영	배병재	배세호
방종신	서정원	서달석	서명수
서병호	서석원	서광제	서명수
손기철	손기태	손준래	손태영
송기진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권	신승진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화철
신현승	심길성	심상보	심효무
신희돈	안동혁	안성보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준홍
양성식	양성열	양준영	오보림
오성욱	오성원	오승택	유재홍
윤내문	원종호	유봉근	유재홍
이성철	이성원	윤지선	윤수민
이영호	이영철	이광순	이규찬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상준	이상현	이성호	이성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권
이영준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정	이인용	이치환	이정호
이재광	이재춘	이정국	이종광
이종우	이재철	이진택	이찬주
이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당
이현규	이홍선	임 훈	임범수
임상봉	임영철	임재남	임현태
임호영	임정호	장경문	장경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영수	전영수	전현배
정우열	정병호	정성기	정석순
정연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명태	정영환	정용옥	정윤성
정운오	정원만	정우택	정우현
정재범	정진호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환	조보환
조성수	조소현	조소환	조한진
조청구	주성대	주재택	진종국
차춘근	차민철	차복남	최만민
최상근	최정일	최재환	최주관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상진
하준만	한동우	한복구	한상규
하승환	한영수	한왕석	한필두
함일식	함정철	허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근	홍성진	홍의선	홍종수
홍승우	홍병원	황상순	황성통
황승주	황윤일		
◆ 명예장로			
김충수	박동순	박용운	박천구
이승규	이용만	이영도	이희선
장국영	장광택	장성건	지상진
채수상	최창걸	홍순진	황용수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록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팻트박스	박지언
박영규	양호성	우성근	이경환
주지수	최대화	최우진	최종훈
추교병	함지언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승열	강종현	김해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 찬
김경철	김정환	김지형	김 현
김해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정
문보람	박해원	박광규	박정식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승주
유순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영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성만	이성만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희환
전병모	정성민	정필호	채희만
전경영	정희모	최유성	최지현

최재영	최혜경	최희운	홍승식
◆반주자			
김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건태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람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승기
김연창	김은경	김은실	김지민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현
김지은	김지후	김진수	남준호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박근환
남민우	남애설	노보화	노상호
노소라	노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석진	박아령	박옥순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준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신헌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숙
오주영	우경진	염주하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정원	유지하
윤희정	윤순주	윤종진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현
임원우	장재우	장현호	정지현
정다혜	정우찬	정주호	정지연
정진우	조민지	조서민	조은하
천은미	최희숙	최형균	최지현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의 온도 비교표

◆담당목사			
권영철	김도균	김철호	문영대
박신웅	서재범	이길택	요시하루
마비바	전현규	정호석	조준복
나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추 OHM 담당 목사			
김철진	김학철	마크프	심상훈
이만득	이성권	이정엽	이재창
이종재	정장철		
◆부독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훈	김성언
김성진	김진숙	김영모	김정운
김진우	김정식	김한성	남지현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환
박종훈	박진민	박현욱	박종현
배성우	변법섭	손 담	손호성
손미경	신기원	심제현	심형관
안성진	양진분	염영희	유은솔
유명종	유영준	이영기	이덕구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탄영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장이지
정재용	정상현	정하진	정홍준
정동윤	조수정	최성식	최철환
허 민	홍동욱	홍성은	홍세만

해의 온도 비교표
 Hae's Temperature Comparison Chart
 Hae's Temperature Comparison Chart

Michael Lee

◆전도사

김영만	고은아	강성호	강은
김성현	김민혜	김정옥	김창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현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은
이영은	이국영	이은진	이지현
임지훈	윤성민	윤성조	장성진
장세운	장유미	정병천	정성진
정은숙	조 단	최현정	최윤은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
시 메구	하여진	하정훈	한현희
호신아	황다연	랜스온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
David Kim Jeana Lee Jeff Y
Jessica Yi Jo Oh Sam Chun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김하은	권덕수	김경덕	김수은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노유은
백민인	서태빈	송태민	신종
우승호	유영운	이광철	이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

홍기주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우
강진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
남영진	박호택	성현제	손정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
이관필	이한인	이수성	이은
이준상	정민용	정현주	조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
허규호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	-----	-----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정
유한돈	임기식	임현식	오명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

주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
김진용	박종우	남병호	박민
박진영	김소영	박민	송희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
정영현	조경화	조요셉	홍현
황애란	황진주		

소천

12/11(수) 서초B 이경아 성도 시모상 고 유형호
12/13(금) 양재A 구명순 권사 시부상 고 설판기
12/14(토) 서초A 박용규 성도 모친상 고 박정수
12/14(토) 이촌 오진영 권사 시부상 김덕자
12/14(토) 동대문중앙 고 최복순 권사
12/16(월) 동작 이상구 성도 부친상 고 이양우
12/17(화) 성동광진 강은주 집사 시모상 고 박옥분
12/17(화) 서산은누리 김영선 성도 모친상 고 민태인
12/17(화) 가정사역 김용석 성도 부친상 오경희 성도 시부상
고 김인수
12/17(화) 고양은평 최병일 집사 모친상 오선영 집사 시모상
고 김상순
12/18(수) 서초A 정혜유 성도 모친상 고 민복기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 의료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의 헌금 매뉴얼에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실입주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간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회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면접상담: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화~금요일 제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거피움 자동차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서빙고 의료데스크 의료진 모집
분야: 의사, 약사, 간호사
시간: 주일 9시~14시(한 달에 한 번 로테이션)
문의: 김정숙 권사(010-3753-0175)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및 시설관리
우대: 인건 거주자, 컴퓨터활용능력자, 운전기능자(1종보통)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5년 2월 3일(월)~13일(목)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안산 M센터 의료팀 봉사자 모집
모집: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시간: 매월 셋째 주 오후 1시~4시
문의: 서달원 팀장(010-7666-7528)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가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선유지를 사용합니다.

8 0 분 으 로 압 축 된 바 울 로 부 터 의 감 동

ἀπὸ Παύλου

바 울 로 부 터

스 페 셸 마 스 터

KBS1 TV 성탄 특집 방송
12월 25일(수) 밤 10시 50분



12월 26일(목) 공개



12월 28일(토) 저녁 7시

12월 29일(주일) 밤 10시 20분



10부작 보기

“사도 바울의 생애는 <바울로부터>를
통해 아름답게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바울로부터>를 통해 선교의 뜨거운
열정과 소명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한국 교회에 영적 도전을 주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규현 (수영로교회 담임목사)